

고흥 '직불금 일괄 신청제' 도입 호응

쌀 보전·밭 농업·조건불리 직불금... 내달 15일까지 한꺼번에 신청

고흥군이 쌀 직불금 등 농업인의 각종 직불금 신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 일괄 신청제를 도입,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8일 "지금까지 따로따로 신청을 받았던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금 일괄 신청제'를 도입해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 고정 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벼, 연근, 미나리를 재배하거나 타 작물 전환, 휴경하는 경우 지

급한다.

논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68만102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다.

또 농지 등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감면

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눠 1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채,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늘어나 26개 품목에 대해 지급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영농조건이 열

악한 지역에 대해 논과 밭, 과수원은 1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기간 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직불금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국경기자 gju@



연일 흥행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지난 27일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박람회장 내 호수공원 전경.

비에 강한 순천정원박람회장

260mm 폭우에도 피해 없어

각종 꽃과 나무 등으로 꾸며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8일 "지난 27일 순천에는 260mm(순천만 일원 241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나 정원박람회장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 30년간 순천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데이터 시우량 80mm(1시간단위), 2시간 120mm를 근거로 박람회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최대 강우량인 지난 2009년 7월 790mm 역시 설계에 반영하면서 '비'에 강한 정원을 만들 어냈다. 이번 폭우로 박람회장은 일 부 잔디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지위 시설트는 "소실된 잔디의 양이 소량으로 바로 복구됐다"며 "일 부 조경업자들은 폭우에 따른 수많은 꽃과 나무의 유실을 예상해 대비했으 나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원박람회 관람객은 하루 평균 3만8000명으로, 누적 관람객 은 154만명을 넘기며 연일 흥행기록 을 경신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곡성 장미축제, 3일만에 13만명 다녀가

곡성군은 28일 "지난 24일 시작된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26일 오후 8시 기준 13만7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개최중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실적인 개최 3일 기준 10만명보다 3만명 이상 상회하는 실적 으로 국제행사 중 비수익 축제에 성 황리에 막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부산, 서울 등 여러 등지에서 많이 찾아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축

제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축제장 장미꽃은 이번 주 내린 비를 머금고 더욱 화려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랑커플추천선' 이벤트에 선정된 한 부부는 "장미축제에 와서 아름다움 장미에 감탄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니 정말 100%장미공원에서 천사를 만난 듯하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정기자 kjkim@

고흥경찰서 체감안전도 전국서 2위

고흥경찰서가 2013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국 249개 경찰서중 2위를 차지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청이 지난 1월28일부터 4월17일까지 일반국민 90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반적 안전도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고흥경찰서의 체감안전도는 78.5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12.8점이 올랐다.

고흥경찰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 읍·면을 찾아가 직접주민을 만나 치안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집중시스탐인 '고흥사랑 1·23·순찰제'를 통해 매일 2개의 마을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흥=주국경기자 gju@



차 예법 배우는 고교생들

최근 경상북도 경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차박물관의 '찾아 오고가는 다례교육'에서 차 예법을 배우고 있다. 한국차박물관의 올해 가장 큰 사업인 '찾아 오고가는 다례교육'에는 지금까지 22개 학교, 1500여명이 참가했다.

광양-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약

광양시는 28일 "이성웅 광양시장 이 이날 오후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담중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숙사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에 연면적 9283㎡ 지하 1층, 지상 7층의 총 362명(186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

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희망동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 지난 광양시의 회 임시회에서 (재)백운장학회가 장학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10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을 의결함에 따라 30

실 규모에 60명을 입사시킬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신학기부터 지역출신 서울진학 대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단신

800리 지리산 둘레길 시작 남원 주천면에 스타트 하우스

9억원 들여 건립

800리 지리산둘레길이 시작되는 남원시 주천면에 둘레길 스타트하우스가 건립된다.

남원시는 28일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9억원을 들여 대지 1957㎡ 건물 216㎡의 규모로 스타트하우스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스타트하우스에는 둘레길 출발지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지리산 둘레권을 총괄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도농교류시설을 갖춘다.

1층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 판매 전시 공간과 정보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테라스를 설치하고 2층에는 탐방객들을 위한 숙박공간과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발코니가 들어선다.

옥외 공간에는 주천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와 가족단위 체험객을 위한 캠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름철에는 임시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노후설계 '골드북' 교육

순창군이 은퇴를 앞둔 40대~60대 중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남성을 위한 골드북' 1기 과정이 28일 오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주최하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순창군이 은퇴를 앞둔 40대~60대 중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남성을 위한 골드북' 1기 과정이 28일 오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주최하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순창군이 은퇴를 앞둔 40대~60대 중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남성을 위한 골드북' 1기 과정이 28일 오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주최하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농산어촌 보전, 살기좋은 마을 조성

부안, 우동·계화도·내소사·청호 등 4개권역 217억 투입

부안군이 농·산·어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며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자생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미래를 가꾸는 상향식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28일 "지난 2005년부터 우동·계화도·내소사·청호 등 4개 권역에 총 217억원을 투자해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5500여명의 체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사업에 착수해 총 53억원 가량이 투자된 우동권역은 '전통속에 함께 가는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반계 선생 유적지와 선계폭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학습콘텐츠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계화도권역 역시 지난 2011년 사업승인 이후 현재 다목적회관 신축과 어촌회관 리모델링, 계화순 산책로, 생태휴양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5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화도권역에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70억원이 투입, 완료할 계획이다.

들어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내소사와 석포저수지, 백천 일원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세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사업에 착수한 하서면의 청호 권역도 청호저수지, 석불산 주변 세 트장 등을 활용해 자립형 마을로 거듭난다. 이 권역에는 총 46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후 세부 실시설계를 수립한 뒤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역군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차질 없는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농·산·어촌마을도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형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yv0681@

부안, 오디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탄력

부안 오디가 원활한 피의 흐름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안군은 27일 참봉 신성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주)벤스랩에 의뢰한 '부안 오디의 기능성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관련 전문가와 가공업체, 농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착수한 이 용역은 참봉 오디를 주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 기능성 개별인증 등록을 위해 오디 추출물의 분석 및 표준화, 안전성, 유효성, 기능성 검증, 성과물 확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yv0681@

전주시, 도심거리 메리골드 등 7종 식재

전주시는 광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에 시민들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 거리에 초여름꽃을 식재하기 시작했다.

전주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메리골드, 페츨니아 등 7종의 초여름꽃 20여만본을 팔달로, 충경로 등 19개 노선에 배치된 화분과 화단에 식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춘향골 복숭아 첫 출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춘향골 복숭아가 지난 26일 첫 수확을 시작했다.

이번에 첫 출하되는 복숭아는 금치면 입압리 안흥섭씨의 0.8ha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된 것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6

개 농가 5.4ha에서 시설복숭아가 재배되고 있으며, 노지재배에 비해 4~5배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춘향골 복숭아는 현재 224ha가 재배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북 4월 수출액 전년보다 24% 감소

전북지역 지난 4월 수출액이 8억 387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4.6% 감소했다.

올해 1~4월 수출액도 37억4000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등 수출이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불

황이 지속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분부는 28일 "도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각각 12.7%, 31.9% 줄었고, 정밀화학원료(29.3%)와 반도체(46.1%) 수출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